



눈꽃처럼 희고 차게,
그리고 뜨겁게



단풍에 새하얀 꽃이 찾아들었다.
바람에 쉬이 흩날리지 않으려고
잎사귀를 꼭 그러안은 작은 결정체들...
희고 고운 이 작은 알갱이들을 보며
또다시 겨울이 왔음을 온몸으로 느낀다.
너무 뜨거워 어지러웠던 가슴이 차분해진다.

지난 시간을 돌아볼 여유가 찾아든다.
눈꽃처럼 희고 차게, 그리고 뜨겁게
나의 지난 계절을 차분하게 돌이켜본다.
그리고 이야기한다.
그 지난 계절은 참 아름다웠노라고,
참 행복했었노라고.